



Hana Market Weekly

# 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자금시장영업부

2023. 11. 6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# 주간 달러/원 동향(10/30~11/3) 및 전망



## 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예상에 부합한 미 9월 PCE와 BOJ 통화정책회의 앞둔 경계감 등에 환율은 하락 출발. 이어 BOJ의 YCC정책 수정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에 따른 엔화 약세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 영향 속 국내 산업지표 개선과 수급상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출회 등에 소폭 하락
- 중반 들어, 한국 수출 증가세 전환 소식에도 11월 FOMC 결과 대기하는 가운데 경계심리 강화되며 상승
- 후반, FOMC에서의 금리동결 결정과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환율 급락.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 상회하며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증대됨에 따라 큰 폭의 하락세 시현하며 1,320원대 초반 마감

## 달러/원 전망

- 달러인덱스가 10월 비농업 고용지표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결과와 서비스 PMI 경제지표 역시 예상치를 밑둬 따라 큰 폭 하락한 영향 반영 속 엔화 환율 강세 흐름 예상
- 여기에는 FOMC 결과와 고용지표 냉각에 따른 미 국채금리의 큰 폭 하락 전환도 완화 강세 지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
- 반면,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인식 결제수요 요인과 중동발 전쟁 확산 가능성 이슈 등이 하방 지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에도 주목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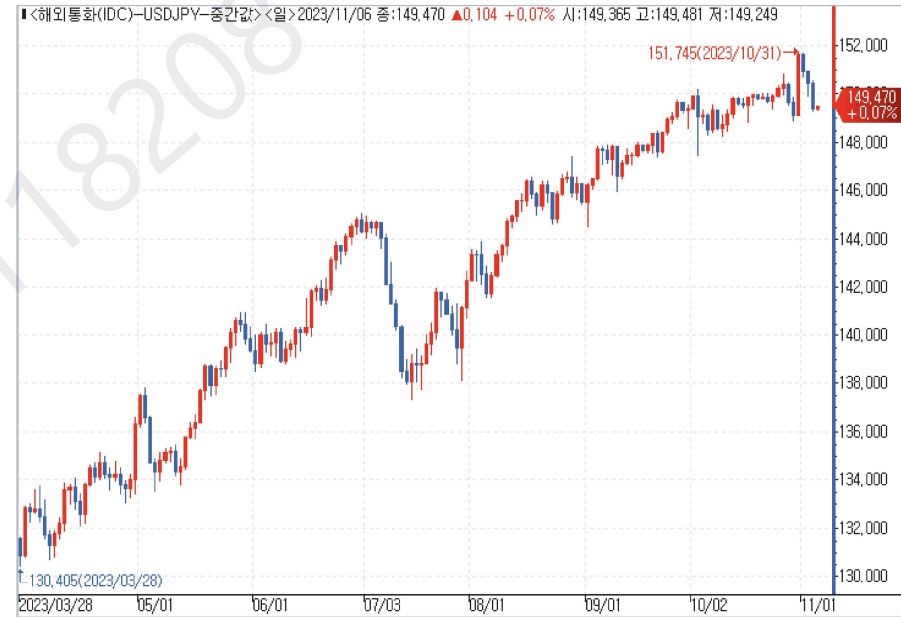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356.7	1358.7	1317.4	1322.4	-34.3

## 예상거래범위

1,300원 ~ 1,320원



# 엔·유로화 동향 (10/30~11/3)



## 유로화 동향

- 주초, 예상보다 양호한 독일 3분기 GDP 확인되며 강세 출발. 이어 유로존 3분기 GDP 마이너스 기록하고 10월 CPI 둔화되는 등 경기 침체 전망 속 약세 전환
- 중반,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한 모습에 ECB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약세 지속
- 후반 들어,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 하락세와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하며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 전환. 이어 미 10월 고용 지표 둔화 확인 후 Fed의 금리인상 중단 전망 강화되자 큰 폭의 강세 시현하며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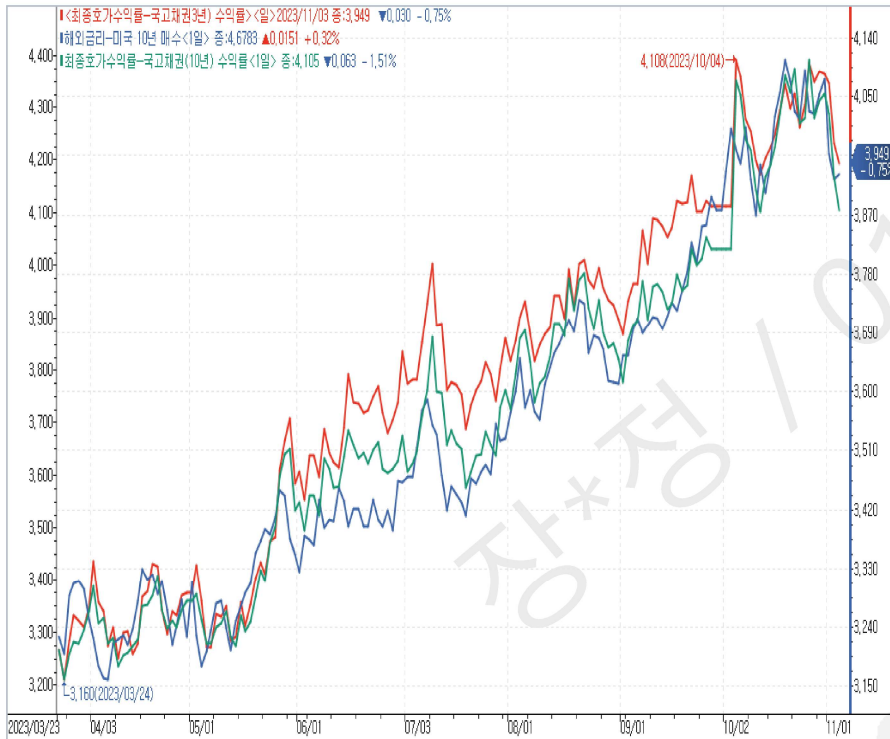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563	1.0747	1.0518	1.0732	+0.0169

## 엔화 동향

- 주초,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앞두고 YCC 정책 조정 기대감 확산되며 달러 대비 강세 출발. 이어 BOJ의 10년물 국채금리 1% 초과 용인 조치에도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급격한 약세 흐름 속 달러당 151엔대 진입
- 중반, 비둘기적으로 평가된 FOMC 결과에 미 국채 수익률 하락함에 따라 미-일금리차 축소 영향 속 가치 반등
- 후반 들어, 미 국채금리 하락세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들의 구두개입성 발언 강화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. 이어 미 고용 데이터 둔화되며 달러 약세 흐름 심화됨에 따라 강세 지속되며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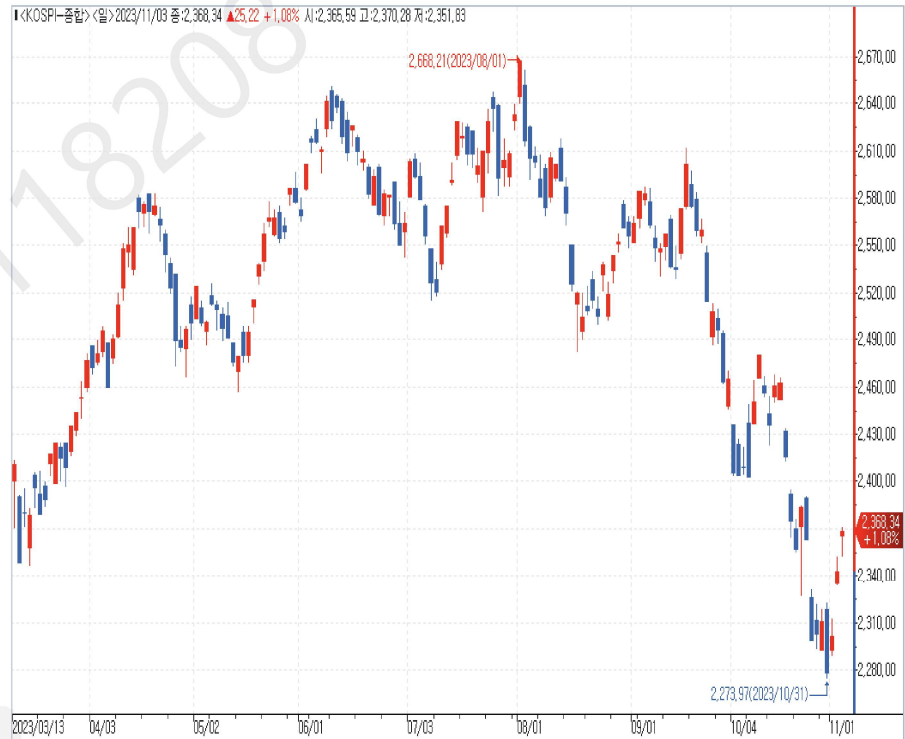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9.6	151.7	148.8	149.4	-0.2

#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0/30~11/3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FOMC를 앞두고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한 가운데 수급상 국고 30년 입찰 소화 등을 거치며 상승 출발. 이어 BOJ의 YCC 정책에 대한 유연성 언급 등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으로 상승 지속
- 중반 들어, FOMC와 미 재무부 만기별 차입 계획 발표 등에 대한 관망 속에 한은 총재의 한국 경제의 부정적 전망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
- 후반 들어, FOMC가 시장 예상 대비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는 평가에 미 국채 금리 하락세 반영하며 국고채 금리도 동반 하락 지속 후, 주 후반, 미 주간 실업 보험 청구건수 증가 속 고용보고서 관망 분위기 속에 FOMC 영향 이어지며 하락 추세 마감

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11월 FOMC에 대한 경계감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관의 순매수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 출발. 이어 중국 제조업 PMI 부진 속에 뉴욕증시 테슬라 하락 폭 확대 등에 따른 국내 이차전지 업황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
- 중반 들어, 전일의 낙폭 과대 인식 속 기관 매수 등으로 상승 전환했으나, FOMC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단 제한 양상
- 후반 들어, FOMC의 예상보다 강했던 비둘기적 스탠스 속에 채권 금리 하향세 등이 코스피 급등에 영향 미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도 강화. 주 후반 들어 미국 10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에도 FOMC 영향 지속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 등을 반영하며 2,360 대 회복하며 마감